

CPO협의회, 2007 하계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개최

협회 산하 CPO협의회(회장 송경섭)는 지난 8월 24일(금) 프로 비스타호텔 펠리체(15층)에서 2007년 하계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과 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향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CPO를 초청해 개인정보관리의 노하우를 들었다.

이번 워크숍은 개인정보보호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업체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는 GS홈쇼핑, 롯데닷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다음, NHN, G마켓, 네오위즈, 네오플, 삼성전자, 벅스뮤직 등 25개 업체(기관) 50여명이 참석하였다.



FTTH산업협의회 회원사 워크숍 개최

협회 산하 FTTH산업협의회(회장 서광주)는 지난 9월 12일(수) 서울 교육문화회관 금강홀에서 '2007년 FTTH산업협의회 회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내·외 FTTH 산업동향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협의회장인 서광주 KT네트워크부문장을 비롯해 FTTH산업협의회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FTTH관련 정책과 건설사의 FTTH 추진계획 등의 소개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과 회원사 프로모션 및 분과별 활동경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情감있는 디지털시대
스북함이 KAIT기 함께 합니다

i-KAIT 단합대회 개최

협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협회가 운영 중인 'Young Board'가 'i-KAIT'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단합에 나섰다.

지난 8월 31일(월) i-KAIT 운영위원 18명은 청평 수상 스포츠타운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 제 3기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차기 임원진들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던 이번 시간은 협회 직원들이 자기혁신을 강화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3단계 BcN구축 기본계획 제1차 전체 워크숍 참석

협회는 지난 8월 28~29일 이틀간 양지 파인리조트에서 열린 3단계 BcN구축 기본계획 제1차 전체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보통신부 김재영 인프라정책팀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이영근 IT인프라구축단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3단계 BcN구축 기본계획에 대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IT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개선사항과 발전방향 등을 협의했다.

자매결연 마을 행사 참가

8월27일 충남 부여 정동2리



협회는 지난 8월 27일(월) 1사1촌 결연마을인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2리 마을을 찾아 우물 정화 및 신축 정자 준공식 등 마을행사에 참가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 정자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주민 200여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1사1촌운동'을 통한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호뜻한 자리였다.

특히 협회는 새로 지은 정자에 '농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어려운 시기에 작은 나눔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나눔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준공식에 이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산책로 걷기, 정확한 우물물 맛보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가졌고, 마을회관에 레이저프린터기 기증, 고장 PC수리 등 IT봉사활동도 벌였다.

이 날 준공식에서 협회 조연수 경영혁신본부장은 "새로 지은 정자가 마을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더욱더 큰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4월 "정보통신 유관 협·단체 협의회 사회봉사대"를 결성, 정동2리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사무국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정보통신 현황과 주요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석호익 원장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8월 정기조찬



한국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학·연 핵심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운) 8월 정기조찬회가 지난 8월 28일(화) 오전 7시30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석호익 원장이 ‘정보통신(IT) 현황과 주요 ISSUE’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석호익 원장은 ‘IT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IT외에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원이 별로 없다’며 “융합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석 원장은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차세대 통신서비스 도입에 따른 관련 장비 수출이 증가하고,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증가로 올해 IT산업 수출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방송기기는 디지털TV 현지생산 전략과 가격경쟁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석호익 원장은 디지털 컨버전스와 관련해, “CDMA가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에 성공하면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 반면, 디지털 위성방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힌다”며 “이해관계자의 협조체계 및 의사결정 여하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 두 사례를 모범삼아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키 MEP사와 국내 GSM관련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8월 7일(화) 터키 MEP사 CEO Ali Agan을 초청, 국내 GSM관련 기업 이너스텍, 셀리지온 등 7개사와 함께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터키 IT협력단2006’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MEP 측에서 관심을 보인 이너스텍, 텔슨TNT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월별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협회 지원사항 등을 파악키로 협의했다.

한편, 터키 MEP사는 GSM단말기, PDA 제조 및 유통 분야를 중점으로 모바일 콘텐츠 등 Package 사업을 추진 준비 중이며, 한국 기업과는 GSM 단말기 및 관련 액세서리 분야에서의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情감있는 디지털세상
스북함이 KAIT기 함께 합니다

u-KOREA EXPO 2007 개최

협회 산하 FTTH산업협회(회장 서광주)는 한국 u-City협회, 한국정보통신신문사와 공동으로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u-KOREA Expo 2007' 을 10월 1일부터 3일간 COEX 대서양홀에서 개최한다.

지난 4월 FTTH 관련업계의 유사 전시회 중복 참가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기회 제공을 통한 FTTH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도부터 FTTH산업협회에서 개최한 'FTTH · u-City산업진사회', 2005년도부터 한국정보통신신문사에서 개최한 'IT INFRA EXPO' 와 한국 u-City협회에서 개최 계획 중인 'u-City Korea' 등의 개별전시회를 통합해 'u-KOREA Expo' 를 공동개최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1회 u-KOREA Expo' 는 약 300부스의 전시규모로 u-City 서비스 및 u-인프라솔루션, 통신케이블, FTTH솔루션, 통신계측기 및 측정장비, 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장비, 홈네트워크 및 보안솔루션 등의 품목이 전시된다. '2007 u-City 국제 컨퍼런스' 와 u-City · FTTH · IT Infra 기술세미나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FTTH산업협회 사무국

02-580-0525

제9회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9월 20일(목) 코리아나 호텔에서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과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지난 3월부터 303개 작품이 열띤 경합을 벌여 대상을 차지한 서영우(KBS 방송기술연구팀)씨의 "개인간 거래를 지원하는 개인 가상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전자화폐 OPEN ID 시스템" 등 20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최우수상에는 채송화씨(KAIST 박사과정)가 제안한 "클리핑 유알엘 (Clipping URL) 정보 기반의 인터넷 콘텐츠 포털 플랫폼" 와 정조균씨((주)드림위즈 이사)의 "Multimedia Mix 슬라이드 동영상과 무료 Image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지능형 문맥광고 시스템" 이 각각 선발되었다. 이번 수상자들에게는 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대상 2000만원(1편), 최우수상 1000만원(2편), 우수상 500만원(5편), 장려상 300만원(12편)의 상금과 각종 지원이 주어진다.

제7회 모바일기술대상 공모

협회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제7회 모바일 기술대상' 의 후보작을 공모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제품 중 신청접수 시점 전 1년 이내의 제품을

대상으로 접수하여 오는 10월 1, 2차 심사를 거쳐 11월 시상할 예정이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백만원과 3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정보통신부장관상은 단말기 부문과 콘텐츠 부문 등으로 나눠 각각 2백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장상,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상에게도 1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모바일기술대상

18개 정보통신 유관 협·단체 통방융합정책관련 공동건의

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8개 정보통신 유관 협·단체는 통신방송융합정책의 조속한 도입과 합리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기구통합과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상징인 IPTV 연내시행 등을 담은 건의서를 9월 1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8개 정보통신 유관 협·단체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수년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경직된 규제 시각과 관련업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같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18개 협·단체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는 국가의 새로운 IT 성장동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련 차세대 네트워크, DTV, Set-Top Box, 콘텐츠 분야 등에 대형 투자를 수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만큼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8개 정보통신 유관 협·단체는 공동건의서에서 통신방송융합이 지연될 경우 기투자한 인력, 기술, 개발비 등 국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ITU(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경쟁력 손실 등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해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결과적으로 통신방송융합 도입정책지연과 더불어 관련 IPTV 등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법적제도 마련과 이에 맞는 규제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함께하는 협단체 (18개)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www.ksfc.or.kr/)
- 정보통신공제조합 (<http://www.icfc.or.kr/>)
- 차세대컴퓨팅산업협회 (www.anci.or.kr/)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www.sw.or.kr/)
- 한국인터넷기반진흥협회 (www.kispa.or.kr/)
- 한국전파진흥협회 (www.rapa.or.kr/)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www.kisia.or.kr/)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www.fkii.or.kr/)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www.kica.or.kr/)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www.kait.or.kr/)
-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 (www.kaira.or.kr/)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www.ktoa.or.kr/)
-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www.hna.or.kr/)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www.itsa.or.kr/)
-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www.kibwa.org/)
- 한국RFID/USN협회 (www.karus.or.kr/)
- IT벤처기업연합회 (www.koiva.or.kr/)
- IT-SoC협회 (www.itsoc.or.kr/)

情감있는 디지털시대
스북함이 KAIT과 함께 합니다

통신방송융합정책 조속시행을 위한 공동건의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8개 정보통신 유관 협·단체 일동은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통방융합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통신과 방송은 산업 간 영역의 융합으로, 침체된 국내 IT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기구통합 및 통방융합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방송통신융합의 상징인 IPTV서비스에 대해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와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신규 융합 서비스의 특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통방 융합서비스(IPTV서비스)가 연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